

WELFARE ISSUE TODAY

VOL.155(2026년 02월)



복지이슈 TODAY

K-지역복지(특집호)

전문가 기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K-지역복지'

- 가장 한국적인 복지가 가장 세계적인 복지가 되다 | 김용득

04

국내이슈

01 건물을 넘어 관계로 - 서울시 지역밀착형복지관 5년의 기록과 도약 | 신민정

06

02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돌봄 공동체 | 박현주

07

03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관계중심 통합실천이 주는 의미 | 권민지

08

04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돌봄 생태계' K-지역복지의 해답을 찾다

-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실천을 기반으로 | 박지형

09

05 자산기반접근으로 확장하는 관계와 일상 - 사람 중심 장애인복지관 실천 | 박은아

10

06 고립·우울 고위험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기반 통합돌봄 실천 | 황보창국

11

07 동작구 고령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례 -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실천 | 장재웅

12

08 영등포행복마을: 대안가족 기반 지역 노인돌봄 실천 - 노년이라는 긴 상실의 과정 속에서 서로 살피며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 박영숙

13

09 혼자 먹던 밥상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까지 -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일상 속 동반식사로 전환한 노인복지관 실천 | 최은영

14

10 다문화 지역에서, 노인은 어떻게 '연결의 중심'이 되었나 - 지역사회 통합거점으로서 노인복지관의 실천 | 홍태임

15



WELFARE ISSUE TODAY

복지이슈 TODAY

- 발행인**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기획위원회** 김원호(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궁은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아카이브 → 복지이슈 투데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센터 02-6353-0413, today@welfare.seoul.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지역복지(특집호)

Contents

전문가 기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K-지역복지' - 가장 한국적인 복지가 가장 세계적인 복지가 되다

I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04

국내이슈

- | | | |
|----|---|----|
| 01 | 건물을 넘어 관계로 - 서울시 지역밀착형복지관 5년의 기록과 도약 I 신민정(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지역협력팀장) | 06 |
| 02 |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돌봄 공동체 I 박현주(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07 |
| 03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관계중심 통합실천이 주는 의미 I 권민지(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08 |
| 04 |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돌봄 생태계' K-지역복지의 해답을 찾다 -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실천을 기반으로 I 박지형(신목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09 |
| 05 | 자산기반접근으로 확장하는 관계와 일상 - 사람 중심 장애인복지관 실천 I 박은아(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10 |
| 06 | 고립·우울 고위험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기반 통합돌봄 실천 I 황보창국(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11 |
| 07 | 동작구 고령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례 -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실천 I 장재웅(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12 |
| 08 | 영등포행복마을: 대안가족 기반 지역 노인돌봄 실천 - 노년이라는 긴 상실의 과정 속에서 서로 살피며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I 박영숙(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13 |
| 09 | 혼자 먹던 밥상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까지 -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일상 속 동반식사로 전환한 노인복지관 실천 I 최은영(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14 |
| 10 | 다문화 지역에서, 노인은 어떻게 '연결의 중심'이 되었나 - 지역사회 통합거점으로서 노인복지관의 실천 I 홍태임(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15 |

전문가 기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K-지역복지’ - 가장 한국적인 복지가 가장 세계적인 복지가 되다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1. 복지서비스 동향과 K-지역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휴먼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담, 지원, 지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진다. 서비스가 제도화된 초기에는 의존(dependence) 상태를 지속하는 도움이 중요했다가, 동정적인 의존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으로 자립(independence)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흐름이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사람과 연결을 추구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강조되는 추세이다.¹ 이런 흐름은 다양한 관점과 언어로 표현된다.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지역사회 참여 중심으로, 개인의 결함과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개별 모델에서 사회 환경과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 모델로, 개별적 욕구에 맞추어진 표준적 방식에서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계약 기반 서비스에서 지역공동체 접근으로, 문제와 약점 중심에서 당사자 강점과 지역사회 자산기반으로의 변화 등이 이와 관련된다.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접근 방법에서 강점, 연결, 공유, 참여, 지역 등에 대한 강조는 개인 단위의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역량 개발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접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community based support),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실천(community based social work practice), 장소 기반 복지(place based wellbeing)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흐름을 포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의 의미로 ‘지역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역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역사회라는 장소 기반의 공동체 접근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서비스 및 활동으로, 개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어려움을 예방, 해결하는 데 국가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강점과 지역사회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을 돕는 사례관리실천과 지역사회조직화나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거시적 실천을 결합하는 접근이다.²

개인에게 표준적인 서비스를 상품과 같이 제공하는 복지 방

식은 자연 지지체계를 확장하지 못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³ 우리나라 지역복지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개발 등을 통합해 가면서 지역사회에 밀착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지역복지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는 개인의 어려움을 지역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지역에 통합, 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2. K-지역복지 형성 과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우리나라 복지관의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모델을 찾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복지관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에 대해 두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1) 서비스 측면의 환경 변화 영향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역할로 설정되었다. 사회복지관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였고,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인의 의료, 교육, 사회, 직업 등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종합센터 모형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소득, 교육, 의료, 고용, 돌봄 등의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복지관의 종합적인 기능에 포함되었던 역할들이 하나씩 다른 제도의 기능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관의 모형변화는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세대 복지관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취약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① 김용득(2023), 『자산접근과 대인사회서비스: 이론과 실천』, 서울: 박영스토리.

② 민소영(2017), “사례관리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례관리연구, 8(1), 45-67.

③ Cottam, H(2018), *Radical help*, London: Virago, 박경현·이태인 역(2020), 래디컬 헬프, 서울: 착한책가게.

이었다. 2세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비롯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직접서비스 제공 비중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조직, 문화·여가, 자활·자립 등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어 직접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가 혼합된 과도기였다. 3세대는 2010년대 중후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지자체 공공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대폭 강화되면서 복지관의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2) 정부와의 관계 변화 영향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복지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전의 복지관 운영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포함되는 국고 보조사업이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고, 복지관 설립을 포함해서 운영관리 전반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다. 이후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는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대폭 강화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서비스 등도 이 시기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이용자 선택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두 구조로 운영되면서, 바우처사업과 같은 개인 선택형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복지관 운영 등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복지관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중대한 위기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복지관이 계속 발전,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와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는 복지관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 복지관은 ‘국고보조 시기에 공유되었던 정체성과 지방이양 시기에 확장된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 되었다.

3. 해야 할 일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지역의 강점 활용, 지역사회 통합 등을 표방하는 한국의 복지관은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를 다른 나라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지관의 명칭과 역할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Welfare Center⁴와 같은 명칭으로는 K-지역복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Community Connecting Hub(Center)’와 같은 명칭이 필요하고, 복지관의 실천도 ‘Community Connecting Practice’와 같이 우리나라 복지관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복지관에서 수행되는 실천 지식을 발굴, 확산하여 공식적인 지식으로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지관 실무자들이 쌓아온 ‘실천 지혜(practical wisdom)’를 귀하게 여기고, 이를 잘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에서 실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천 지혜를 보면 그 소중함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⁵

셋째, K-지역복지를 발굴하여 체계화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K-FOOD 산업의 경우처럼 ‘K-지역복지 협의회’와 실무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협의회와 실무조직은 K-지역복지 표현언어 개발, 실천 지식 발견과 공식화, 해외 홍보, 해외 방문에 대한 응대 등을 담당해야 한다.

④ 영문표현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Social Welfare Center, 노인복지관은 Senior Welfare Center 또는 Elderly Welfare Center, 장애인복지관은 Rehabilitation Center 또는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직접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던 복지관의 1세대 모형에 가까운 표현으로 K-지역복지를 전달하기 어렵다.

⑤ 관련 예시는 2025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실천 공유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rhpt1PZw9Dc>).

국내이슈 01

건물을 넘어 관계로

- 서울시 지역밀착형복지관 5년의 기록과 도약

신민정(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지역협력팀장)

1. 패러다임의 전환: '상호호혜'를 향한 지역복지의 시작

최근 지역복지의 흐름은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당사자의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강조하는 '사회 모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복지 모델이 지향해야 할 핵심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서로를 돌보는 '상호호혜(reciprocity)'의 가치에 있다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 철학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골목 안에서 구현해낸 가장 구체적인 실천 사례다.

과거의 복지관이 건물 내에서 분절된 3대 기능(사례관리, 조직화, 서비스)에 매몰되었다면, 이제 서울의 복지관은 담장을 허물고 주민의 일상적 관계가 흐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place-based wellbeing)'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전환이 아니라, '동(洞) 중심 통합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복지 생태계로 바라보며 주민들이 서로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2.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드는 지역밀착형 연결의 확장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기조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동력이 된다. 현대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적 고립'은 관공서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일상 속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커넥팅(Community Connecting)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지역 복지 전달체계의 점점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왔다. 2021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지역밀착형 복지관은 2025년 기준 서울 전역 89개소로 전면 확대되었으며, 총 280개의 주민센터가 복지관과 촘촘하게 매칭되어 협력체계를 가동 중이다. 복지관 1개소당 평균 3.1개의 동을 전담하며 주민과의 물리적·심리적 밀착도를 높여온 결과, 복지관이 동네 카페나 임대단지 상가 등에 구축한 '거점 공간(이웃 사랑방)'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연결의 허브가 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곧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복지 전달체계가 주민 곁으로 바짝 다가서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인원은 2021년 218명에서 2024년 69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¹⁾

이는 복지관이 건물을 나와 지역의 자산을 연결할 때, 고독사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 현장전문성 강화 및 정책고도화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현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기술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단은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동 중심의 표준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통합실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왔다.

앞으로 재단은 그간 축적된 실천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서울형 지역복지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질적 성과 지표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의 실천 경험이 서울시 전체의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현장의 변화: '수혜자'에서 '공동체 주권자'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제 복지관을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우리 동네 사랑방'으로 인식한다. 서비스의 이용자였던 주민이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고, 고립되었던 이웃이 다른 이웃을 살피는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은 지역복지가 지향하는 '상호호혜적 돌봄'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주민 주도성' 강화야말로 서울시와 재단이 함께 그리는 '약자와의 동행'의 완성이다.

5. 미래 과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 성과'의 증명

이제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을 도모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지역복지 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민관 협력의 시스템화다. 현장의 통합 실천이 실무자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협업을 공식적인 업무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성과 지표의 혁신이다. 단순히 방문 횟수나 개소 수와 같은 '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의 외로움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지역사회의 상호호혜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Outcome)' 중심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을 넘어 관계로, 그리고 지원을 넘어 호혜로 나아가는 서울시 지역밀착형 복지관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5년의 기록은 앞으로의 지역복지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이며, 서울의 모든 골목이 따뜻한 '연결의 장소'가 되어 '외로움 없는 서울'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이 도약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① 서울시복지재단(2025), 지역밀착형복지관 성과분석연구.

국내이슈 02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돌봄 공동체

박현주(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지역복지는 오랫동안 결핍을 보완하는 체계로 기능해 왔다.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에 개입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고립·은둔 1인 가구 증가,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된 지금,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개별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문제와 결핍을 찾고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찾고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자산 기반 공동체 개발(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과 공동생산(co-production)이다.

ABCD는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활동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밝혀내고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김용득 외, 2021).¹⁾ 지역을 문제의 집합이 아니라 자산의 집합으로 바라보며, 여기서 자산은 물적 자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경험, 관계, 기술, 시간, 삶의 이야기까지 자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관계하던 주민을 '사례관리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로 고정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재인식하도록 돕는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누고 축적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공동생산은 이러한 관점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기획·운영·평가에 걸친 전 과정에 함께 하며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산이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며,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성 또한 확장된다.

우리는 자산기반공동체개발과 공동생산을 기관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모든 실천에 적용하고 있다. '사이시웃 시간은행'은 주민의 자산을 활용한 상호돌봄과 지역 복지 공동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이시웃 시간은행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돌봄·여가문화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보다, 주민의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모든 사람은 기여할 것이 있다'라는 관점에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뜨개질, 집수리, 풍선아트, 피아노 등 경험을 통해 축적된 자산부터 새로운 사람에 대한 환대, 안부확인, 아이 놀이활동 지원 등 사람에 대

한 관심과 배려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모든 것이 마을의 자산이 된다.

이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핵심 주체가 '목동분관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들은 시간은행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역에 가치를 전파하는 커뮤니티 커넥터로서, 지역주민을 초대하고 환대하며 자산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지역을 서로 돕는 공동체로 가꿔가는 주인공이다. 기존에 서비스 이용자, 사례관리 당사자, 봉사자로 구분했던 주민들이 현재는 '목동분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하며 사이시웃 시간은행의 모든 과정을 함께 공동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인식되었던 주민이 다른 이웃에게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이 전환되고, 그 경험이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한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

고립·은둔해 있던 당사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 세상 밖으로 한 발 내디딜 결심을 했을 때 우리는 위에서 기술했던 자산이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움님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오일파스텔모임으로 스스로에게 이웃을 만나야 하는 명분을 부여했다. 음악이라는 관심사로 2년 만에 집 밖을 나서게 된 하늘님은 '기대보다 따뜻했던 사람들의 환대'를 느꼈기에 공동체에 발을 붙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의 관심사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경험하며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실천은 개별 돌봄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는 성과를 지향하는 지역복지의 방향을 현장에서 구체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산기반공동체개발과 공동생산의 실제 사례는 '관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자산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복지관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축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장의 무엇을 성과로 바라보고, 어떤 과정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산을 축적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복지관은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에서 돌봄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로 전환하고 있다.

1) 김용득, 『자산접근과 대인사회서비스』, 박영스토리, 2023, p.4

국내이슈 03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관계중심 통합실천이 주는 의미

권민지(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요즘은 이웃집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이다. 엘리베이터나 골목길에서 이웃을 만나더라도 눈인사를 건네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전화를 걸 사람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상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분명하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가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적으로 버티게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을 연결하고, 관계를 기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복지관은 건물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안으로 들어가 주민의 일상과 욕구, 지역의 특성을 직접 파악하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의 구조와 철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기존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지역조직으로 분절된 운영방식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개별·집단·지역사회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관계중심 통합실천 체계로 조직을 재편하였다. 관계중심 통합실천은 개인을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개인과 환경이 서로 잘 어울리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개인이 지닌 강점과 관심사를 관계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며 어떤 만남도 거절하던 조 씨 아저씨는 ‘바둑’이라는 관심사를 매개로 관계의 문이 열렸고, 이후 이웃 모임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삶 전체가 무너졌던 모나 어르신 역시 꾸준한 만남 속에서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강점을 발견했고, 복지관 아동 사업에 마을 선생님의 참여하도록 주선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고,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며 관계망 안에서 상실의 고통을 조금씩 회복해 가셨다. 육아 부담으로 지친 라다 어머니 역시 육아모임 속에서 마음을 나눌 이웃을 만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청소년기부터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현이 청년도 야

구와 산책이라는 관심사로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관계의 힘은 복지관 관계망 사업에서도 확인되었다. 동네안녕 인사캠페인, 동네잔치, 이웃모임은 주민이 부담 없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 주민들은 “조금씩 이웃과 만날 기회를 접해보니까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어떤 건지 왜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니까 외출도 못 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웃과 서로 인사하니 안부를 물을 이웃이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고 많이 느껴요.”, “외로운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만날 때마다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혼자 아니라는 걸 느껴서 좋아요.”, “고독감,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혼자 있으면 고독이 없던 사람도 고독하게 되잖아요. 일단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교류하니깐 슬픈 생각들이 사라져서 좋아요.”,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갈 곳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인생에 즐거움이고 산다는 것에 긍지를 갖게 합니다. 만날 수 있는 이웃도 있어서 좋았고, 웃음이 많아져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관계가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고립감 감소와 정서적 안정, 신뢰 형성,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복지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망이 형성될 때 비로소 삶이 다시 버틸 힘을 갖게 됨을 확인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주민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복지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경험은 관계중심에 둔 통합적 접근이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지역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깊이 얽힌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가볍지만 느슨한 관계망 역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앞으로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생태·강점·관계 기반으로 주민이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며, 그 힘이 다시 지역의 회복과 변화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계중심 통합실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한다.

* 이 글은 권민지(2025), 관계 중심 통합실천을 하려는 그대에게, 「지역으로 밀착하여 이웃 사이 친밀하게」, 서울:구슬케는실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국내이슈 04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돌봄 생태계’ K-지역복지의 해답을 찾다

-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실천을 기반으로

박지형(신목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 들어가며: ‘공간’의 변화가 불러온 ‘관계’의 변화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대한민국 복지 현상이 마주한 상황이다. 공공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한계에 갇혀 있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은 제도의 틈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K-지역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사회복지가 주민의 삶터로 들어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8년부터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복지관 건물에 안주하지 않고 각 지역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팀을 파견했다. 이른바 ‘지역밀착형 복지’의 시작이었다. 지난 수년간의 도전은 단순히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 숨겨진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복지관이 주목한 돌봄대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상호 돌봄’ 사례를 통해 K-지역복지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도가 보지 못한 그림자, ‘새로운 약자’를 찾아내다

지역밀착형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약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목복지관은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고립 가구, 그리고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① 청춘을 저당 잡힌 아이들, ‘가족돌봄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마저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였다. 복지관은 2023년부터 ‘청년 공감 플랫폼’ 사업을 통해 이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다.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청년들에게 ‘자기만의 시간’을 선물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사업 참여 후 청년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② 편견 속에 갇힌 이웃,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및 고립 문제는 공공이 개입하기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다. 신목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소모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③ 낡은 세대의 비명, ‘고령 가족 돌봄 중장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중장년층,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 복지관은 2025년 이들을

위한 ‘우리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장년들이 겪는 독박 돌봄의 고통을 지역사회가 분담하고, 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조직화했다.

3. “주민이 답이다”: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상호 돌봄망 구축

K-지역복지의 핵심 성공 요인은 ‘지속 가능성’이며, 이는 결국 주민 조직화에 달려 있다. 신목복지관의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사회복지사가 지원한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이웃살피미’, ‘신목봉사단’ 등 다양한 주민 조직을 육성했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홀로 사는지, 누가 밥을 굶는지 가장 잘 아는 ‘생활 밀착형 활동가’들이다. 가족돌봄청년 사업에서도, 중장년 돌봄 사업에서도 핵심은 당사자들 간의 자조 모임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이들을 돕도록 연결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2024년 사업 평가 결과, 네트워크의 활동 횟수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복지관이 명석을 깔아주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회복되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신목이 추구하는 지역복지의 완성이다.

4. 제언: K-지역복지의 확산을 위하여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며 느낀 점은, 이제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이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과정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는 일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몇 명에게 도시락을 줬느냐보다, 고립된 한 명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몇 번을 찾아가고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인정해 주는 평가 지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유연한 예산 집행 권한의 확대다.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돌봄과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는 기존의 경직된 예산 항목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의 특수성과 시급성에 맞춰 현상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민관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다. 공공은 제도의 틀을, 민간은 관계의 망을 담당해야 한다. 신목복지관이 동 주민센터와 끊임 없이 소통하며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한 것처럼, 형식적인 MOU를 넘어서 실무자 단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가 보여주듯,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시설’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K-지역복지’의 미래일 것이다.

국내이슈 05

자산기반접근으로 확장하는 관계와 일상

- 사람 중심 장애인복지관 실천

박은아(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일상적인 연결을 넓혀갈 수 있도록 자산기반접근(Asset-Based Approach)을 실천하고 있다. 자산기반접근은 당사자의 결핍을 보완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개인이 지닌 강점과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장소·경험·관계라는 자산을 연결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복지관은 이를 위해 팀 간 경계를 허물고 다학제 전문가가 협력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을 함께 찾고 계획하며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사람을 중심에 둔 협력, 자산기반위원회

복지관은 2020년 학습과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팀이 참여하는 자산기반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지원·직업개발·평생교육·지역호호 등 모든 팀이 참여해 한 사람을 중심에 둔 협력적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 발굴 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가족의 동의, 주변 관계망 등 삶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삶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체계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중심, 기관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 간 코칭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실천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빠른 성과보다 참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지원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노래로 이어진 관계, 상원(가명) 씨의 일상 변화

발달장애를 가진 중장년 당사자 상원 씨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언젠가 이웃과 함께 서울을 두루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복지관은 상담실이 아닌 상원 씨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함께 걷고, 익숙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과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다. 이는 자기표현이 서툰 상원 씨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주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산기반위원회는 상원 씨의 강점과 욕구를 바탕으로 소규모 모임과 동호회, 인근 기관을 함께 탐색했다. 모든 과정은 상원 씨의 의사결정과 속도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지역사회 자산을 찾고 연결하며 동행했다. 그 결과 노래라는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이웃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원 씨는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가끔 만나며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함께하는 과정 중 상원 씨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보다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배움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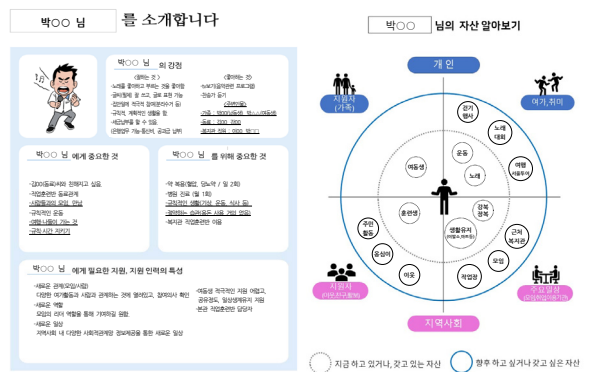
3. K-지역복지로서의 의미와 확장

우리복지관의 자산접근 실천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능성과 지역사회 자산을 연결해 한 사람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관은 다음의 원칙을 확립했다.

- 당사자의 의사와 속도를 존중하며 충분히 설명하고 유연하게 실천한다.
- 팀 간 경계를 넘어 다학제 전문가가 협력하며 실천한다.
- 변화는 작고 느릴 수 있으나, 장애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자산접근 실천은 기존 지원방식이었던 결핍을 확인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지역사회가 지닌 강점을 활용해 어려움을 예방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실천이다.

장애인복지실천현장은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이 확산되는 K-지역복지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내이슈 06

고립·우울 고위험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기반 통합돌봄 실천

황보창국(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구 고령화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우울 및 고립 고위험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을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모형 실천 사례와 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고령 장애인은 신체기능 저하, 만성질환 증가, 이동 제약, 디지털 정보 접근성의 한계,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이 지속될 경우, 건강 악화, 고립과 우울, 자기방임,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2002)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화를 위해 참여, 건강, 안전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우울과 고립의 위험이 높은 중고령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건강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공공·민간복지기관·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한 사례를 관계망, 건강망, 안전망으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망'은 '이웃사촌'과 '스마트학습지기'를 조직하여 당사자가 이웃과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웃사촌은 전화·문자·방문을 통해 안부를 나누고 여가활동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스마트학습지기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검색, 키오스크 활용 등을 1:1 교육·실습 중심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참여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유사한 선호와 관심사를 가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집 밖으로 나와 동네에서 가족·이웃과의 소통을 재개하며 고립감을 완화하였다.

둘째, '건강망'은 반찬가게 연계 식생활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당사자 거주지 인근의 반찬가게와의 협력은 당사자가 소비자로서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상점주는 안부를 여쭙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고령 장애인의 식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고 생활권 기반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상점 중심의 '어르신 돌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맞춤형 의료지원의 필요가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건강주치의, 재활운동, 구강

건강관리, 복약상담 등을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약사회, 병원,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안전망'은 중고령장애인이 삶을 꾸려가는 집안팎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거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바 설치, 전등 교체, 미끄럼 방지, IoT 기기, 장애유형별 필요 제품 설치 등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또한 기후 취약 당사자에게는 냉방기기 설치, 동절기 한파 대비 물품 지원을 통해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개입을 통해 장기간 고립 상태에 있던 당사자가 정서적 안정과 자기 돌봄 의지를 회복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이후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협력으로 일상생활 자립을 유지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과 상점주는 상호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며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

본 모형의 실천사례는 장애인복지관이 관계·건강·주거·안전·주민참여를 통합하는 생활권 기반 돌봄 허브 역할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를 지원하는 현장실천가와 조직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첫째, 돌봄은 '전문가 중심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당사자 맞춤형 지원'과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해진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의 생활반경·일상활동·소비공간 등 '삶의 현장'을 통합돌봄의 장으로 확장할 때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 사례는 지역 돌봄 생태계 내 연결자로서의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통합돌봄 실천전략으로 활용될길 기대한다.

국내이슈 07

동작구 고령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례

-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실천

장재웅(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돌봄, 이동, 사회참여 문제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으며, 의료·돌봄·생활지원이 분절된 기존 전달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주변화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 돌봄통합지원제도의 핵심 대상이 노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은 정책적 준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복잡적이고 고난도 차원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중고령 장애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동작구 내 3종 장애인복지관(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이하 '컨소시엄기관')은 동작구 중고령장애인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고령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동작구 자기주도예산 및 맞춤형사업'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부제: 동작구 고령장애인인행복한우리마을, 이하 '동고동락사업')을 진행하였다. 동고동락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기획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목적은 동작구 내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대상은 동작구 거주 5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은 조기노화 특성을 반영하여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고동락 사업의 지원 모형은 <동작구 고령장애인 발굴·조사 → 지원욕구 사정 및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 → 서비스 결정 → 자기주도예산 및 맞춤형사업 진행>으로 구성된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점은 지자체가 실질적인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교부하며 민간은 사업을 실행하는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예상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령장애인의 발굴과 조사였다. 이 사업의 초점은 '동작구 전입·신규등록 장애인, 1인 가구 및

저소득층,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 기타 추천 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장애인을 발굴하는 데 있으나, 민간기관은 사회정보망 접근 권한이 없으며, 정보가 없는 가정을 방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단독으로는 신규 발굴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컨소시엄 기관과 지자체(동작구)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복지센터 → 구청 → 대표기관 → 장애유형별 컨소시엄 기관'으로 이어지는 발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 발굴된 참여자들은 기관 담당자가 가정 방문 후 지원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결정을 진행하였으며, 자기주도예산 및 맞춤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였다.

사업 첫해는 본격적인 고도화에 앞서 사업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고령장애인 발굴·지원, 삶의 질 향상, 자치구와의 돌봄체계 구축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 발굴과 개별 지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기존 전달체계 안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공공 서비스 연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돌봄, 의료, 이동 영역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평가 결과, 중고령 장애인에게서 이동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참여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만 65세 이하 경증장애인은 공적 이동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차기년도 사업은 민간 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이동지원 체계를 통해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중고령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영역에서도 민간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지향하는 자립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 제도 간 연계와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동작구 중고령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기반한 통합돌봄 모형을 현장에서 검증·축적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의 실천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차기년도 사업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고도화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내이슈 08

영등포행복마중: 대안가족 기반 지역 노인돌봄 실천

- 노년이라는 긴 상실의 과정 속에서 서로 살피며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박영숙(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긴 상실의 과정, 우리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과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다.

누군가의 여유와 돌봄을 빌려야 할 때, 돈이 많은 적은 나이는 사람을 약하고 외롭고 불편하게 만든다.

지금의 노인복지로 가능할까?

각자도생의 시대, 국가는 초고령사회에 다양한 복지를 만들어 낸다. 이런 것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서비스의 장벽은 높다. 국가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자격이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은 나이든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노인 당사자는 노후의 삶을 그저 '걱정'만 한다. 노년이 길어진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시대다. 긴 노년은 긴 상실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인복지를 할 것인가? 함께 맞이해 줄 동년배가 힘이 되는 시기, 서로를 의지하고 챙겨주는 소소한 관계가 비혈연대안가족이 되어 지역에서 나누며 살도록 하면 어떨까?

노인이 대안이고 지역이 힘이 되기까지

긴 노년기를 내가 살던 지역에서 서로 살피며 보내시도록 노인이 살고 계신 곳으로 마중 나가는 '영등포행복마중' 사업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 이런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하다.

- 자조모임을 통한 마을살이(자조모임 59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끼리 관계를 만들고 서로 돌보는 대안가족이 되어 살던 곳에서 살기
 - 든든한 지역의 울타리인 마을지기(32명)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재능을 나누며 우리 지역 노인을 지키는 활동으로 세대가 공존하는 동네 만들기
 - 함께공간(19곳)
종교시설, 카페, 상점, 사무실 등 교육과 자조모임 활동을 하도록 지역에서 내어준 공간
 - 행복한 골목학교(20개 강좌)
다리힘도 빠지고, 인지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 병원에서 퇴원해서 기력이 떨어지는데 복지관까지는 멀고 집안에 혼자 있기는 힘들 때 함께공간에 모여 소집단 교육을 하면서 친구도 관계도 만드는 시간
- 이 네 가지가 지역에서 함께 작동하면 "함께돌봄"이 된다.

삶의 질과 의미가 달라진 노년

"만나서 즐겁고 살맛나는 은하수모임 한가족이나 다름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웃을 수 있어 소중한 내가 된다"
"이 공간의 힘이 이렇게 기쁘게 돌아올 줄 몰랐다"
"동네 공간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모여있는 거다"



국내이슈 09

혼자 먹던 밥상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까지

-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일상 속 동반식사로 전환한 노인복지관 실천

최은영(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동반식사 기반 관계회복’ 사례

저녁 시간이 되면 집 안은 조용해진다. 밥을 차리고, TV를 켜고, 말없이 식사를 끝낸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만난 남성 독거 어르신들, 특히 지역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1인 가구 어르신들의 하루는 대체로 이런 풍경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문제는 끼니가 아니라, 함께 말할 사람이 사라진 일상이었다.

고립은 정서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

이 사업은 우울 점수나 위험군 판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혼자 먹는 식사가 일상이 되면 외출은 줄고, 대화는 사라지며,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함께 약해진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이 단절의 시작점이 바로 식사라는 일상 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복지관은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닌 관계의 설계자

이 사업에서 복지관의 역할은 명확했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복지관 안에서 또래 남성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나눴다. 요리는 매개였고, 목적은 관계였다. 함께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일상을 나누며,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관계의 확장: 복지관에서 일상으로

이후 공간은 점차 이동했다. 복지관을 벗어나 가정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소규모 동반식사가 일상이 되

었고, 이웃과 지역 인사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

복지관의 개입은 의도적으로 점차 줄였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 사업이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사업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구조’였다.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남아 있는 관계’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어르신들은 서로 연락했고, 함께 외출하고, 취미를 공유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안부 전화가 이어졌다. 이는 관리나 지도가 아니라 관계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 예방이 ‘지원의 강도’보다 ‘관계의 지속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을 바꾸는 것이, 고립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 사례는 거창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새로운 시설을 짓지도 않았다. 다만 이미 존재하던 공간과 사람, 그리고 식사라는 일상을 다시 배열했다. 그 결과, 혼자 있던 어르신의 일상은 다시 지역사회 안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 예방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울형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은 개인의 관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 사례는 노인복지관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안에서 관계가 지속되도록 설계하고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리보고(단체 관 내 요리활동)



조리보고(2인 1조 가정 내 요리활동)



또모고(집단상담)



1인가구 지원센터 연계(공유주방) 활동

국내이슈 10

다문화 지역에서, 노인은 어떻게 ‘연결의 중심’이 되었나

- 지역사회 통합거점으로서 노인복지관의 실천

홍태임(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지역사회 통합거점 실천 사례

용산구는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 곧 사회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방식 속에서 지역사회는 쉽게 분절된 채 병존한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이 분절의 한가운데서 질문을 던졌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노인과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에서 찾았다.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처가 아니라 ‘연결을 조정하는 거점’

이 사례에서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았다. 지역사회 안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과 자원을 만나게 하고, 이어지게 하고, 지속되도록 조정하는 허브로 작동했다. 핵심은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연결의 중심에 서는가였다. 복지관은 외국인 주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어르신을 ‘참여자’로 두지 않았다. 대신 어르신을 지역사회 연결의 매개자로 세웠다.

노인을 ‘참여자’가 아닌 ‘연결 주체’로 설계하다

‘컬처트립 봉사단’은 이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르신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과 명절 문화를 매개로 용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과 만났다. 무엇을 소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는 어르신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미를 제공하는 선배시민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자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다

이 사업의 중요한 성과는 사람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관은 어르신-외국인 주민-지역 공간-지역 기관을 하나의 활동 흐름으로 엮었다. 전통 음식 만들기, 문화 설명, 체험 활동은 각각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가 순환하는 구조의 일부였다. 그 결과, 교류는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기억과 경험으로 남았다.

통합의 결과는 ‘관계의 위계가 바뀐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계의 위계였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설명하고 사람을 잇는 존재가 되었고, 외국인 주민은 지원의 객체가 아니라 함께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으로 자리했다. 이는 다문화 정책이 종종 놓치는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사회통합은 프로그램의 수가 아니라, 누가 중심에 서서 연결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지역사회 통합거점으로서 노인복지관의 가능성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노인복지관은 연령 집단을 위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단절을 완충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합거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공간과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는 연결될 수 있다.

이 사례는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통합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의 주체를 중심으로 세울 때 작동한다는 점이다. 노인복지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결의 허브로 기능할 때, 사회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이 된다.



문화 알림 활동 사진

WELFAIRE

ISSUE

www.welfare.seoul.kr

TODAY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우 04147) Tel. 02-1670-5755